

W_F_721

여의주를 찾지 못한 이무기

2019년 4월 24일, 서귀포시 송산동(보목동) 한기팔 씨 댁, 문순덕 · 김은정 조사.
한기팔(남, 1937년생, 서귀포시 보목동)

- 서귀포시 보목동 출생으로 대학과 군대생활만 타지에서 하였고, 이후 현재까지 보목동에서 살고 있다.

• 줄거리: 섬섬과 문섬 사이에 바다가 깊은데 그곳에 사는 백년 된 이무기가 용이 되고 싶어 용왕에게 용이 되게 해달라고 청했다. 용왕은 섬섬과 문섬 사이에 여의주가 있는데 그것을 찾으면 용이 될 것이라고 했다. 그러나 이무기는 여의주를 찾지 못해 용이 되지 못했다.

[제보자] 보목리에 섬섬하고 저 문섬 사이에 바다가 좀 깊어. 거기에 이무기가 살았어. 이무기 부부가. 이무기 부부가 아직 용이 채 되지 못한 것을 보고 이무기라 하는데 거기에 백년 묵은 이무기가 살았는데 자꾸 용왕한테 용이 되게 해달라고 구원을 한다고.

그러니까 그 용왕이 하도 부탁, 보채니까 용왕이 여기에다가 그 저 섬섬하고 저 문섬 사이에 여의주를 풀어가지고 여의주를 찾으면 용이 된다 이렇게. 용을 하게 해 준다. 그런데 3년 동안을 계속 찾아도 여의주를 못 찾안. 못 찾으니까 끝끝내 용이 되지 못하고 찾다 찾다 그 뱀이 죽어버려.

뱀들이 죽어버리는데 죽어버리니까 그 영혼이 혼이 이 섬섬 저 남쪽 수평선에 비가 오려고 해서 마가 치면 용오름이라고 해서 용이 오른다고. 용이 오르는데 세 마리 용이 오르는데 세 마리가 같이 오르는데, 그 세 마리가 한꺼번에 다 오르면 수이가 지고 수이라고 하는 건 잘 모르지만 큰 물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많아져서 홍수가. 그걸 수이 진다. 수이 진다고 그렇게 하고 두 마리가 나타나면 아주 좀 적당한 물이 적당해서 비가 적당해서 농사가 잘된다고 하고. 그 다음에 하나가 오르면 가뭄이 든다 하고.

그것이 용오름이라고. 그것이 문섬하고 섬섬 사이에 있는 그 이무기의 영혼들이 그렇게 한다고 전해지고. 저 직구섬하고 여 사이.

• 핵심어: 문섬, 이무기, 여의주, 용, 섬섬, 용오름, 직구섬